

2010. 8. 16 제245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0. 8. 16 제245호

문화 · 디자인

1. '여름거리'(Summer Streets) 행사 개최 (뉴욕)
2. '우리들의 디지털도시' 프로젝트 추진 (영국 버밍엄시)

건강 · 복지

3. 혁신적인 어린이공원 '상상놀이터' 개장 (뉴욕)
4. '노인특별구역' 설치 등 노인친화적인 환경 조성 (뉴욕)
5.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시영(市營) 아파트단지 빈집 활용 (일본 오사카시)
6. '액티브 카드' 계획 시행 (영국 카디프시)
7. 저소득층에게 중고물품을 싸게 파는 가게 개장 (독일 함부르크시)
8. 독일 최초로 '이민자통합법' 제정 추진 (베를린)

도시환경

9. 다양한 건물녹화 사업 추진 (런던)

도시교통

10. 양방향 자전거도로 건설 추진 (파리)
11. 아이폰용 벨리브 자전거 검색 애플리케이션 무료 공급 (파리)
12. 자전거 공공 대여 프로그램 실시 (런던)
13. 자동차 공유 프로그램 시범 실시 (미국 호보켄市)

도시계획 · 주택

14. 랜드마크와 역사 경관 보호 강화 (런던)
 15. 도크랜드 수변공간 재활성화계획 발표 (런던)
-

문 화 · 디 자 인

1. ‘여름거리’(Summer Streets) 행사 개최 (뉴욕)

○ 뉴욕市는 여름을 맞이하여 교통국 주관으로 2010년 8월 한 달간 주말마다 브루클린다리에서 센트럴 파크까지 12km에 달하는 거리를 대상으로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가 여러 프로그램을 즐기도록 하는 ‘여름거리’(Summer Streets) 행사를 개최함.

- 이 행사는 시민들이 도로 및 가로공간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고, 맨해튼 주민들에게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보장해주려는 목적이 있음. 특히 허드슨강(江) 주변 도로, 할렘 등과 같이 보행자는 많지만 차량 통행으로 여가활동에 제약이 많은 가로를 대상으로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 자전거 이용, 요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市는 60만 명이 넘는 자전거 이용자의 주행 환경이 양호하지 못하고 市 교통체계가 자동차에 더 친화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힘.
-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보고타, 파리, 뉴욕 등 세계 다른 도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市가 민간과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며 도로공간을 공공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함.
 - 이번 행사는 크게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함. ① 파크 애비뉴에서 51번가까지는 ‘Uptown stage’라 하여 어린이 요가, 뮤지컬 공

연, 어린이 타악기 교실, 살사 교실 등이 진행되고, ② 파크 애비뉴와 40번가 2곳에서는 버려진 컨테이너를 재활용하여 만든 수영장을 개장하며, ③ 24번가에서 메디슨 애비뉴까지는 'Midtown Rest Stop'이라고 칭하고 필라테스, 요가, 에어로빅, 테니스 등을 즐길 수 있으며, ④ 센터 스트리트 지역은 'Foley Square Rest Stop'이라 하여 자전거 무료 대여 및 수리, 자전거 주차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www.nyc.gov)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센터 개소 (뉴욕)

- 뉴욕시는 브루클린區를 시작으로 퀸즈區, 브롱스區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립하고 가정폭력에 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 이 서비스센터는 피해자 보호, 법률 지원, 영어교육 및 직업훈련,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개인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영어, 스페인어 등 1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150개 언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함. 서비스센터는 공공과 민간 공동투자로 설립·운영됨.
- 가정폭력은 피해자 스스로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고 주로 저소득층 여성과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생계,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됨. 市는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이와 같은 센터를 운영하게 됨. 센터를 운영한 후 2010년 가정폭력 사건이 20% 정도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피해자 1000여 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음.

(<http://home2.nyc.gov/html/ocdv/html/initiatives/center.shtml>)

2. ‘우리들의 디지털도시’ 프로젝트 추진 (영국 버밍엄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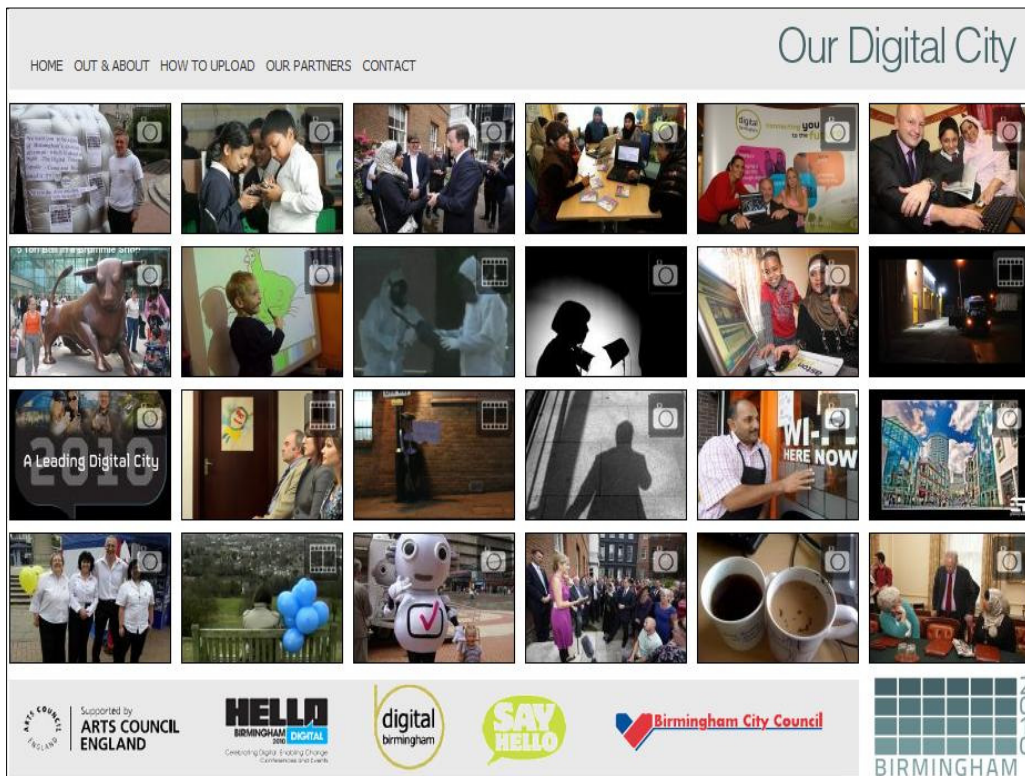
○ 영국 버밍엄市는 ‘우리들의 디지털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민이 자신의 자취를 온라인에 남길 수 있는 이벤트를 추진함. 이 행사는 지역 도서관과 협력하여 ‘BBC 빅 스크린(Big Screen)’ 프로젝트와 함께 추진됨.

- BBC 빅 스크린 프로젝트는 BBC,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 市가 제휴하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임. 사운드시스템을 갖춘 가로세로 25m 대형 스크린을 시내 중심가에 설치해 시민이 각자 원하는 일상 정보 및 예술작품 등을 상영하는 것임. 우리들의 디지털도시 프로젝트는 일반 시민, 특히 학생, 청소년, 노인, 지역 기업인 등의 2010년 일상을 담은 디지털사진첩을 만드는 것임. 이것은 땅에 묻을 필요가 없는 디지털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프로젝트는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일상을 보여주고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온라인 세상에 버밍엄의 발자취를 남김으로써 디지털도시로 발전하는 버밍엄을 적극 홍보하여 도시 위상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市는 시민,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인 등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사진과 영상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市는 중심가에 있는 빅토리아 광장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 프로젝트 취지를 알림.

·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빅 스크린은 매시간 업데이트됨. 스크린에서는 다양한 일상과 개개인의 추억, 메시지와 유품 등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소개됨(사진 참조). 市는 2010년 12월까지 멀티미디어 상영물 5000여 점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www.ourdigitalcity.me.uk/index.php)

건 강 · 복 지

3. 혁신적인 어린이공원 ‘상상놀이터’ 개장 (뉴욕)

○ 뉴욕시는 2010년 7월 27일 버링 슬립 지역에 시립 어린이공원인 ‘상상놀이터’를 개장함(사진 참조). 이 혁신적인 놀이공간은 어린이에게 친숙하지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됨. 놀이기구와 같은 각 요소를 어린이가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시는 상상놀이터가 ① 어린이 스스로 창조적인 놀이를 만들어 내고, ② 맨해튼 남쪽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③ 오픈스페이스와 공원 확충을 목표로 한 시 도시종합계획에 부합하고, ④ 시 경관을 보호하며, ⑤ 어린 뉴욕커에게 뉴욕이 국제적으로 앞서가는 디자인도시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상상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상상놀이터는 예상할 수 있는 유형화된 놀이를 지양하고 유연한 놀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됨. 특히 ① 모래, 물 등 다양한 수단과 공간을 활용하고, ② 전문적인 놀이지도사가 상주해 놀이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성됨. 상상놀이터는 이처럼 어린이가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허물면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짐.

- 시 환경보호국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상·하수도관 이전 설치비용으로 약 30억 원을 투자하고 연방정부 도시주택부로부터 45억 원을 지원받음. 시 경제개발공사가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면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유도하고 주차장시설을 놀이터 부지로 내놓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함.



(www.nyc.gov/html/om/html/2010b/media/pc072710_imagination.aspx)

4. ‘노인특별구역’ 설치 등 노인친화적인 환경 조성 (뉴욕)

○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뉴욕시는 노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을 늘리고 식품가게를 순환하는 셔틀버스 서비스를 노인에게 제공함. 노인센터에서는 예술 강좌를 개설하고市에서는 여기서 강의하는 예술가에게 예술 활동공간을 제공함. 노인이 더욱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노인특별구역’을 이스트 할렘과 어퍼 웨스트사이드 등 2곳에 조성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세대가 되면서市는 이처럼 노인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함.

-市는 노인특별구역에서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노인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함. 예를 들어 조명을 더욱 밝게 하고 글자를 크게 한

메뉴판을 비치한 노인친화적인 가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게 창문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 등이 있음.

- 市の 이러한 움직임은 뉴욕 의학아카데미에서 노인 의견을 수렴한 뒤 市와 시의회에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임. 노인들은 그동안 거리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확충하고, 휠체어 이용에 불편을 주는 도로 배수시설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함.
- 市는 어린이와 노인인구 비율이 1950년에는 2 대 1이었던 것이 향후 20년 내에 각각 15%로 같아질 것으로 전망함. 2030년에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2000년보다 44% 증가해 1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음. 은퇴자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에 따르면 미국 전체인구의 1/3 이상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www.nytimes.com/2010/07/19/nyregion/)

5.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시영(市營) 아파트단지 빈집 활용 (일본 오사카市)

- 일본 오사카市는 고령화대책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모집함. 시영(市營) 아파트단지 1층에 있는 빈집을 고령자나 육아 서비스 관련 비영리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함.
- 2008년부터 7개 아파트단지에서 7개 단체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을 벌이고 있음. 현재 활동 중인 단체는 ① 친구·가족 관계, 따돌림, 학대 문제 등을 상담하고 아동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

상담실’, ② 청소년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지역 과제를 연구하는 ‘현대 찾집’, ③ 일반시민 주도로 지적 장애인 지원활동을 펼치는 ‘지적 장애인 교류회’, ④ 인접한 구호시설을 관리하고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구호시설 지원센터’, ⑤ 영·유아 놀이공간 지원활동을 펼치는 ‘미취학아동 놀이시설 지원센터’ 등임.

- 2010년에는 5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단체를 모집하고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도록 할 예정임. 사업대상이 되는 활동은 ① 고령자 생활 지원, ② 육아 서비스 제공, ③ 기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활동 등임. 대상단체는 ① 특정 비영리법인(NPO), ②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임의의 비영리단체(동호회 제외), ③ 세법상 공익법인 등임.

- 응모단체는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 발표해야 함. 市는 심사를 거쳐 대상단체를 선정할 예정임. 선정된 단체는 市로부터 제공 받은 빈집 이용료를 3만 8900엔(약 54만 원)~6만 8800엔(약 95만 원) 정도 지불하고 4년간 이용할 수 있음.

(www.city.osaka.lg.jp/toshiseibi/page/0000087687.html)

6. ‘액티브 카드’ 계획 시행 (영국 카디프市)

○ 영국 카디프市는 시민이 지역 레저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액티브(Active) 카드’ 계획을 시행함. 이 카드를 소지한 시민은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라켓볼 구장, 자전거 주차시설 등을 갖춘 레저시설 12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이 계획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민이 부담 없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市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市는 레저시설을 개별적으로 이용할 때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수준 높은 레저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성인 기준 한 달 이용료가 19파운드(약 3만 5000원)이며 등록비는 무료임.

· 市는 지난 몇 년간 市 레저시설을 대부분 리모델링해 현대적이고 쾌적한 시설로 탈바꿈함. 최신식 운동기구와 시설을 비치해두고 있고 경력 있는 트레이너들도 배치해 시민들이 건강한 레저활동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시민은 6가지 종류의 액티브 카드를 이용할 수 있음. 이 중 종합 액티브 카드 소지자는 시립 수영장, 피트니스 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피트니스 강좌도 마음껏 수강할 수 있음. 학생은 이용료를 최고 50% 할인받을 수 있고, 16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은 휴일 프로그램과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비정기적인 피트니스 강좌도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음.

(www.cardiff.gov.uk/content.asp?nav=2874,5852&parent_directory_id=2865&id=10542&Language=)

7. 저소득층에게 중고물품을 싸게 파는 가게 개장 (독일 함부르크市)

- ‘페어카우프’(Fairkauf)는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소셜 스토어’로서 중고물품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장기실업자를 고용하여 그들이 이곳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아 정상적인 직업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운영 중인데 기독교 복지기관인 ‘카리타스’가 운영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 2010년 5월에는 함부르크市에서도 페어카우프가 개장됨.
- 저소득층만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음. 실업수당 수급자, 연금생활자, 월 소득 800유로(약 122만 원) 이하 저소득자, 국가에서 주는 학자금 수령 대학생이나 직업훈련생 등은 소득증명을 거쳐 이곳에서 고객카드를 발급받은 후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 개장 후 100일 동안 방문자 1000명에게 고객카드가 발급됨.
 - 판매하는 물품은 대부분 기부 받은 중고 가구, 옷, 생활용품, 책, 장난감 등임. 중고물품 약 1만 7000개가 저소득층에게 판매되었으며 특히 가구류가 잘 팔림.
 - 이곳에 고용된 사람은 모두 98명이며 이 중 87명은 장기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임. 이들은 중고물품 판매 외에도 가구나 다른 중고물품을 기부하려는 집을 방문해 물품을 가져오고 이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옷을 수선하고 가구를 수리하거나 재조립하는 일을 함.
- 이곳에서는 취업상담 카페도 운영함. 방문객은 인터넷으로 취업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페어카우프에 일자리가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음.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회교육 상담사에게 취업문제를 상의할 수도 있고 지원서 작성을 위해 도움을 구할 수도 있음. 실업자들이 실업센터를 찾는 것보다 쇼핑을 하다 잠깐 쉬며 취업상담을 받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이곳 취업상담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이밖에 카페테리아에서는 음료와 간식거리를 판매하면서 요식업소 서비스에 대한 실습을 시행함. 안내센터에서는 쇼핑센터 고객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습을 진행함.

(www.hamburg.de/pressearchiv-fhh/)

8. 독일 최초로 ‘이민자통합법’ 제정 추진 (베를린)

○ 베를린은 180여 개국 출신이 사는 다문화도시임. 市는 독일 최초로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와 통합을 위한 법’을 제정하기로 함. 2010년 8월 3일 市 통합·노동·사회국은 이민자통합법 초안을 시의회에 제출함.

- 市는 오랫동안 이민자의 사회통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이민가정 출신 청소년의 학교 졸업비율과 학업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됨. 이민자나 이민가정 출신이면서 시의원, 예술가, 기업가 등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음.

- 하지만 여전히 독일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 고용, 임대주택 시장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음. 베를린 전체인구의 25%가 이민자이거나 가족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이민자인 이민가정 출신인 점을 고려해볼 때 市나 市 유관기관에서도 이러한 인구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민자 출신 시민이 어떤 사회적 차별 없이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필수적임. 이는 사회 여러 부문에 인구의 다양성에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어야 함. 市는 더욱 열린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독일 최초로 이민자통합법 초안을 만듦. 통합법 초안 작성작업에는 베를린 이민자조직 100여 개가 참여함.
 - 이민자통합법의 핵심은 무엇보다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열린 행정 이 구현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데 있음. 이 법률이 시행되면 행정기관과 공기업은 ① 신입사원 채용 심사 등에 있어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② 채용 시 인구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③ 추진하는 계획과 사업 등이 이민자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는지 차별하는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함.
- 통합법을 시행하게 되면 이민자 참여와 통합을 담당하는 기관도 강화됨. 1981년 설치된 베를린 이민자통합청과 2003년 구성된 이민자통합 위원회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고 자치구마다 통합 담당부서가 설치됨.
 - 아울러 이민자 사회의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 수용정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관 없이 시신을 매장하는 장례 관습도 법적으로 허용되고 경축일법이 개정되어 ‘기독교 경축일’이라는 표현 대신 ‘종교적 경축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됨.

(www.berlin.de/rubrik/hauptstadt/politik-aktuell/100803.html)

도 시 환 경

9. 다양한 건물녹화 사업 추진 (런던)

○ 런던市가 영국 최초로 건물녹화 정책을 도입한 후 2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옥상정원이 들어서 눈길을 끌. 도심 홀본 지역에 있는 구영(區營) 아파트 옥상정원도 이 중 하나임(사진 참조). 이 옥상정원은 캠던區가 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수영장과 어우러져 도심 열기를 식히는 명물이 됨. 의자와 화단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옥상정원과 달리 아파트 지붕 위에 녹색 식물을 입혔다는 점이 특이함.

- 옥상녹화에 따른 효과도 상당함. 녹지가 늘면서 다양한 생물도 늘어나고 있고 식물에 의한 단열효과는 기후변화 대응책이 되고 있음. 여기에 방음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區는 옥상녹화에 그치지 않고 벽통까지 설치한 야생정원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건물녹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자치구 건물뿐 아니라 문화시설에서도 건물녹화를 도입함. 런던박물관은 3000m² 규모 옥상정원과 실내정원을 조성함. 초기에는 옥상정원에서 전시관 내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전시관 지붕재질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함.
- 市는 2008년 발표한 기술보고서에서 자치구, 민간기업 등이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옥상정원과 녹화벽을 적극 설치할 것을 권장함. 소형 건물을 개조할 때에도 녹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캠던 구영(區營) 아파트 옥상정원

(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uploads/living-roofs.pdf)

청년 예술가에게 연수기회 제공 (영국 버밍엄시)

- 영국 버밍엄시는 16세에서 20세까지의 청년 예술가 40명에게 전문 예술가와 일할 수 있는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2010 갤러리 37 프로젝트’를 시행함. 젊은 예술가는 주요 문화기관 등에서 3주 동안 연수를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기법을 배우고 연수 마지막 날에는 성대한 공연을 펼침.
- 1998년에 시작된 ‘갤러리 37 프로젝트’는 그동안 예술가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함. 2010년 행사는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열림. 주요 프로그램은 멀티미디어 비주얼 아트, 디지털 댄스, 공연예술 프로젝트 등임. 시는 청년 예술가가 창의성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이 행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http://birminghamnewsroom.com/?p=11742>)

도 시 교 통

10. 양방향 자전거도로 건설 추진 (파리)

○ 파리는 65개 지역 내 도로 1000개와 접한 ‘30존’에 양방향 자전거도로를 신설한다고 발표함. 이번 조치는 2005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임.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자동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부분 양방향 자전거도로 신설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市는 2010년 7월 해당구역 내 단방향 자전거도로를 양방향으로 모두 바꾸기로 결정함.

- 양방향 자전거도로(그림 참조)는 일반적으로 교통 혼잡이 심하지 않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됨. 市는 자전거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가 서로 피하기 쉽도록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양방향 자전거도로를 설치함.



(www.paris.fr/portail/pratique/)

11. 아이폰용 벨리브 자전거 검색 애플리케이션 무료 공급 (파리)

○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벨리브(Velib) 자전거는 많은 시행착오와 개선을 거쳐 점차 파리시민의 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특히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음. 파리市는 이에 발맞추어 2010년 여름 아이폰용 벨리브 자전거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무료로 공급함. 이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모바일 공공서비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벨리브 자전거정류장 위치를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대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시립 박물관, 도서관, 구청 등 공공기관 위치도 알 수 있고 근처 지하철역과 지하철역 혼잡도 등도 파악할 수 있음. 자전거 이용에 따라 저감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자동 계산할 수 있고, 각종 자전거 이용 정보와 시정 홍보영상 등도 제공받을 수 있음.

(www.velib.paris.fr)

12. 자전거 공공 대여 프로그램 실시 (런던)

○ 런던市의 야심찬 자전거 공공 대여 프로그램인 ‘바클레이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이 市 전역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시행됨. 새로운 공공교통시스템인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은 자전거역 315곳에 자전거 5000대를 비치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한 시책임. 대여 자전거는 하루 24시간 이용이 가능함. 자전거역은 300m마다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편리함.

-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인터넷에서 회원으로 등록해야 함. 자전거 이용열쇠 비용은 3파운드(약 5400원)이고 자전거 하루 이용료는 1파운

드(약 1800원)임. 1주일 대여비용은 5파운드(약 9000원)이고 연간 이용 회원이 내는 요금은 45파운드(약 8만 1000원)임. 처음 30분은 무료임. 지금까지 1만 20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하고 6000여 대의 자전거 이용열쇠가 사용됨.

- 市는 이 프로그램이 세계 최고의 자전거도시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함. 자전거가 친환경적인 저비용 교통수단이라고 밝히면서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이 ‘자전거 혁명’과 런던의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 市는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으로 매일 4만여 명씩 자전거 이용자가 늘 것으로 예측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

‘조용한 지하철’ 시범 운행 (미국 뉴저지주)

- 미국 뉴저지주 대중교통공사는 2010년 9월 7일부터 ‘조용한 지하철’을 운행할 계획임. 우선 뉴욕 펜역(驛)과 트렌톤역(驛)을 운행하는 노스이스트 코리더 급행열차 첫차와 막차를 대상으로 90일간 시범 운행하고 시범 운행 성과에 따라 다른 노선으로 확대 시행할지를 결정함.
- ‘조용한 지하철’ 이용승객은 열차 내에서 게임기,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 이용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음. 대화도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해야 하고 헤드폰을 사용할 경우에도 다른 승객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함.

(www.nj.com/news/index.ssf/2010/07/nj_transit_to_provide_quiet_ca.html)

13. 자동차 공유 프로그램 시범 실시 (미국 호보켄市)

○ 뉴욕市에서 약 7km 떨어져 있는 호보켄市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를 도시 곳곳에 배치해놓고 시민이 공동 이용하는 ‘Comer Car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함. 市는 이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자동차 소유를 줄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 이 프로그램은 렌터카 회사와 계약을 맺고 렌터카 회사 소유 자동차를 도시 곳곳의 도로변에 주차해 시민이 시간 단위로 차를 빌려 탈 수 있도록 한 것임. 이를 위해 지정된 블록마다 차량을 주차해놓고 그 자리를 밝은 초록색으로 표시해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함.

· 허츠(Hertz) 렌터카 회사는 시간당 5달러(약 5900원)에서 16달러(약 1만 9000원)의 이용료와 7%의 판매세 등을 받고 차량을 빌려 줌. 렌터카 회사는 한 구간에 월 100달러(약 11만 9000원)의 주차료를 市에 내야 함.

-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으로 등록한 뒤 전자카드를 우편으로 받아야 함. 실제 차량을 이용하고 싶으면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뒤 원하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해당 차량 앞 유리에 장착되어 있는 카드 인식기에 전자카드를 갖다 대 문을 열. 차를 이용한 후에는 원래 자리에 주차하면 됨.

(www.nytimes.com/2010/07/18/nyregion/18critic.html?_r=2)

도시계획·주택

14. 랜드마크와 역사 경관 보호 강화 (런던)

○ 런던市는 런던 고유의 랜드마크와 역사 경관, 세계문화유산 지역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 지침서 ‘런던 경관관리체계’를 발간함. 이 지침서는 런던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개발자와 건축가의 건물 조성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게 됨.

- 이 지침서에서는 세인트폴 성당과 웨스트민스터 성당 사이 11개 경관 보호 지역을 설정함. 세계문화유산인 웨스트민스터 궁전과 런던타워, 세인트제임스 공원 지역의 경관 보호에 대해서도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세인트폴 성당 주변 경관보호 지역에서는 신축건물 높이를 신중히 정하도록 규제함.
- 市는 런던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양질의 디자인으로 건립한 건축물이 유용하지만 기존 역사 경관을 해치지 않고 어우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따라서 이 지침서가 경관보호 지역 내에서 새로운 건물을 디자인하고 역사 경관을 보호하면서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

15. 도크랜드 수변공간 재활성화계획 발표 (런던)

○ 런던市와 뉴햄區는 도크랜드 일부인 로열 독(Royal Dock) 재개발에 최고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힘. 한때 영국 해외무역의 중심지였던 로열 독을 국제 비즈니스센터로 조성하고 일하기 좋고 즐기기도 좋고 방문하기 좋은 역동적인 지역으로 재개발할 계획임. 이를 위해 뉴햄區와 런던개발청은 개발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상당부분 매각할 예정임.

- 로열 독 지역은 런던 제2금융지구가 가까이 있어 런던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개발 및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곳에는 이미 국제 컨벤션센터 등이 입지해 있고 동런던 대학에는 학생 약 1만 8000 명이 다님. 런던 경전철과 지하철이 연계되어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한 편임. 로열 독과 그리니치 반도를 연결하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 市는 로열 독 재생사업이 이 지역의 잠재력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로열 독은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녹색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임. 녹색산업 분야 전시 및 컨퍼런스 공간은 방문객을 매년 10만 명 이상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를 위해 런던개발청은 상하이 엑스포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임.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london-and-newham-mayors-make-royal-docks-revival-top-priority)